

# 이충원,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칼날 정조준...

이철우, “화물터미널 어디 있든 무슨 상관이나” 발언 의성군민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 미래 경시 태도” 맹폭

이충원(사진) 경북도의회가 이철우 경북지사를 향해 칼날을 세웠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이유다. 때문에 경북도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맹폭을 가했다.

그는 “경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요한 인프라인 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현재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도의원은 “의성군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깊어지고 있다. 의성군이 겪을 전투기 소음과 유령 공항이라는 최악의 각본을 절대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경 노선을 선포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의 경제적 도약과 대한민국의 세계화로 뻗어가는 중

심 도약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의 성, 군위, 대구, 경북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도의원은 이철우 지사의 ‘화물터미널 어디에 있든 무슨 상관이나’라는 발언에 대해 “이는 의성군민뿐만 아니라 경북 전체의 미래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맹폭을 가했다.

무엇보다 “화물터미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경북 경제의 핵심 허브가 될 인프라다. 이러한 발언이 경북의 경제적 도약을 가

별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고 몰아부쳤다. 국토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동축 터에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도의원은 “의성군이 제안한 터가 경제·확장성, 물류기업 유치 가능성 등 모든 면에서 최적지인데 이와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는 국토부의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고 날선 각을 세웠다.

그는 “이러한 결정이 현실화 된다면 공항은 확장 가능성을 잃고, 건설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에 처한다”고 엄중 경고해냈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와 대구시, 정부는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 경북도의회 동료 의원들이 경북 백년대계를 위한 신공항 건설에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용 기자

## 月刊 정치와사람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 대구광역시영일보가 조만간 월간 정치와사람을 발간. 독자 곁으로 다가갑니다.

세계최고 신비의 섬 울릉수놓이는 오명관광여행사

**단체장일정**

류규하 대구구청장은 9일 오전 동성로280아트스퀘어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합동대청소'에 참석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9일 오전 군청상황실에서 '9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 실·과·읍·면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 “대구교육청, 군위 거점학교 육성정책 중단하라”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대위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 개최

군위지역 학부모들의 민심이 사납다. 학부모들은 “군위 거점학교 육성정책은 대구교육청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태라고” 모질게 쓰아부쳤다.

군위 작은 학교 살리기 공대위는 지난 6일 대구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의 화살 시위를 당겼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군위 거점학교 육성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육청이 추진 중인 군위 거점학교 육성정책은 군위지역 초·중고 통학구역조정이다.

공대위는 “지금도 군위 초·중을 제외한 면 단위 학교들은 대부분 전교생이 15~3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학교들은 당장 학교교육활동 운영에 타격을 받고 휴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이 말하는 ‘폐교가 아닌 휴교’는 학생과 양육자 입장에서 학교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군위 면적이 대구시 면적의 41%를 차지함에도 초·중고 1개씩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큰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전하는

막고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전하는 허용하는 것은 일방적 통학구역조정이다”고 했다.

결국 “작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오랜 정을 쌓은 학생들 입장이나 조용한 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살고 싶어 하는 양육자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은 군위 거점학교와 통학구역조정을 발표하기 이전 지역 주민이나 양육자, 학생, 교사 등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실시한 군위 거점학교 정책 현장교사 설문에서 대부분의 군위 현장 교사 대부분이 거점학교와 통학구역조정 도입을 반대(전체 응답자의 82%)했다.

때문에 대구교육청이 대구·군위 통합 1년만에 학교 존립 문제를 경계(효율성) 논리로 풀어낸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구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소규모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을 고려해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교육청이 농촌의 작은 학교 교육 여건을 개선해 과밀 학교로부터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태용기자 박재성 기자

## 살인 폭염... 도내 가축 폐사 작년비 ↓

피해발생... 농가 경영안정 가축재해보험 가입 독려

살인 폭염에도 경북도내 가축 가운데 닭의 폐사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도내 돼지와 닭 등의 가축폐사는 2019년 25만 마리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5

만 5000여 마리, 2021년 4만여 마리, 2022년 4만 4000여 마리, 지난해 4만 5000여 마리로 4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사상 최고의 폭염이 이어진 올해는 8월 말까지 2만 8000여 마리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92만 5000여 마리에서 올해는 121만여 마리로 크게 늘었다. 김성용 기자

## 경북 과수농가 피땀... 재벌기업 배불리는 ‘꿀’

대기업 도매법인 경매 수수료 대형마트 지원구조 개혁 우선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경북지역 과수농가 피땀으로 이룬 결실은 고스란히 재벌기업 배 불리는 꼴이다. 경북은 전국 과일 최대 생산지이다. 하지만 정작 과수농가는 도매법인이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문제점을 조목 조목 따졌다.

정부가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예만 예산지원을 집중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상대적 피해가 극

심하다는 게 이유다.

경북도당은 “서울 가락시장 농산물 도매법인은 서울청과(고려제강), 중앙청과(아모레퍼시픽), 동화청과(신라교역), 한국청과(코리아홀딩스), 대아청과(호반건설), 그리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등 6개 경제 도매법인 가운데 농협 1곳 외 5곳은 농업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사, 사모펀드사가 주도하고 있다”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가락시장 거래량의 90%를 독점하는 대기업 도매법인은 농민으로부터 최대 7%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운반·하차비, 조합료 등으로 23%나 되는 공제금액을 받아 4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최근 가격 폭등으로 사업소득이 2배나 뛰었다.

농림식품부는 매출 50억원이 넘는 재벌기업 계열 대형마트 6개사에 지난 6개월간 총 699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에 지원한 규모는 250억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농민과 소상공인 모두 과도한 도매 수수료와 불합리한 유통구조, 정부의 재벌기업 위주의 지원으로 영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정부를 향해 도매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공제금액을 획기적으로 줄여 과수농가들의 피땀으로 재벌기업의 배만 불리는 유통구조를 개혁하라고 소리쳤다.

도당은 전통시장 농축산물 할인상품권, 운누리 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조여은 기자



예천용궁순대축제... 흥행대박 제10회 예천용궁순대축제가 7일 오전 예천군 용궁면 전통시장 일대에서 5000여 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축제는 8일까지 열렸다. 50년의 역사를 간직한 용궁순대는 예천의 막창순대 요리를 음식 문화축제로 승화시킨 경북의 대표 먹거리 축제다. 해를 거듭할수록 용궁순대축제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강호동의 1박 2일'과 '백종원의 3대 천왕'에 소개돼 주말이면 용궁순대 맛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진=예천군 제공)

신천1·2동 민간사회위원회, 취약 가정 식품 후원

대구 동구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는 지난 4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 및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100박스(300만원 상당)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윤형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신천1·2동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의 지속적인 나눔 실천으로 따뜻

한 신천1·2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장미신천1·2동장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민간사회안전망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기탁 해주신 라면은 자원이 필요한 이웃들이 훈훈한 분위기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전통시장 15곳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30개 시장 '대구로' 온라인 주문 3개 시장 묶음배송 장보기 제공 일주일 1인 최대 4만원까지 환급

대구는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구매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한다.

행사는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과 온라인 쇼핑의 증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 2~13일까지 구·군,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다.

전통시장 이용편의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불로전통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24곳 주차허용구간을 지정·운영한다.

국내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대상으로 각각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일주일, 각각 1인 2만 원 한도로 최대 4만 원까지 환급 가능)해주는 행사도 오는 9일~15일까지 7일간 15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

해 전통시장의 온라인 주문·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연다.

'대구로' 전통시장관에 입점한 30개 시장, 356개 상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1만 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 제공과 더불어 지난달 5일부터 전국 최초 '대구로'에서 결제 가능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사용 시 5% 추가 할인과 15% 특별충전 할인으로 총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달서·신매·와룡시장은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구로' 묶음배송 장보기 서비스를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3000원 할인쿠폰 행사 및 배달비 무료 등 다양한 행사도 하고 있다.

'대구로' 묶음배송 장보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대구로'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 매니저가 한번에 묶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에이스이노텍·하이박 총 5개 노동환경개선 사업비 등 지원

달성군은 대구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 5일 개최한 '2024 달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에서 안전한 일터 만들기

2024 달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

정된 곳은 주식회사 가온하이텍, ㈜달구지푸드, 주식회사 라지, 에이스이노텍(주), ㈜하이박으로 총 5개 기업이다.

군은 올해 선정된 5개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하고, 근로시설 및 안전장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노동환경개선 사업비를 기업당 최대 700만 원 지원한다.

달성군과 대구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부터 달성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구축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제공,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역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조여은 기자

대구 추석 기간 공영·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전체 733개소 40216면 규모 지·정체구간 탄력적 신호 조정

대구는 오는 13~18일까지 6일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귀성객 교통편의 도모에 만전을 기한다.

올 추석 연휴 기간은 전년 대비 줄어들어(6일~5일) 열차 및 항공,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한 대구지역 이동수요가 전년(44.1만 명)보다 4.3% 감소한 42.2만 정도(감 1.9만 명)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평균 이동인원은 7만여 명 정도로 전년(6.3만 명)보다 1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전체적인 교통흐름은 양호하다. 추석 전일 16일, 추석 당일 17일에는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에서 차량 지·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동안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열차의 경우 평시 대비 일 13회 증회된 313회를 운행한다.

시외버스는 일 10회, 고속버스는 일 70회 증회해 각각 734회(724~734), 297회(227~297) 증회 운영한다. 항공편은 평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63회 운행한다.

대구시 및 구·군별로 교통종합상황실을 운영

해(10개반 224명/시 33명, 구·군 191명)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교통상황관리 및 불편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한다.

지난해 교통정체가 심했던 주요 도로 지·정체구간에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적으로 교통신호를 조정하고 대구교통방송, 교통종합정보 누리집 및 스마트폰 검색(대구교통정보)을 통해 우회도로 및 교통소통 상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추석 연휴기간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89개소(8817면)를 13일부터 개방한다.

구·군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부설주차장(3만1399면)은 14~18일까지 개방해 전체 733곳 4만216면을 무료 개방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되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및 횡단보도 주변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한다.

무료주차장 현황 및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구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누리집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교통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글로벌ESD실천연대, 지역사랑 바자회 열려

수성 글로벌 여아카데미 수료자 모임 초기다문화가정 요리실습 과정 운영

수성글로벌ESD실천연대는 4일 대구 수성구 범어도서관 1층 야외광장에서 '이웃사랑 지역사랑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자회는 수성글로벌ESD실천연대 회원의 재능기부로 만든 핸드메이드 친환경 제품과 밀반찬뿐 아니라 신지 직송 농·수산물, 수경식물, 지역기업제품 판매도 함께 이뤄졌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집에서 쓰지 않는 물품

을 판매하거나 필요한 물품으로 교환하는 아나바다장터도 열렸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제 교육 스피치의약품 적정·분리 배출 캠페인 △초기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실천연대의 분과활동을 홍보하는 부스가 마련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실천연대는 이번 바자회가 주민이 생태보호를 위한 소비에 대해 생각하고, 착한 지역기업과의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희 회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힘이 되고, 여성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물결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망을 꿈꾸고 실천하는 실천연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Farming' (농업) with a large graphic and text. It includes details about land acquisition, target areas, interest r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FBO (www.fbo.or.kr).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 '크라우드펀딩 챌린지' 2위 수상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인 투마루가 지난달 27,28일까지 이틀간 라한셀렉트 경주호텔에서 열린 '제5회 펀드 크라우드펀딩 챌린지'에서 2위를 차지

했다. 행사는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및 판로개척 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 챌린지 수상자에게는 기업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기업지원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개설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에 있는 12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입주 및 졸업한 60여개 기업이 참가해 열린 경쟁을 펼쳤다.



영천 축사 가축분뇨 악취 발생 주민 고통...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시의회, 240회 임시회 폐회

축사 가축분뇨에서 일어나는 악취 발생으로 인근 관광지 운영과 지역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영천시는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한 말이다. 지난 5일 영천시의회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이른바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다.

영천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회는 이와 관련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의회간담회장에서 열었다. 보고회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이영기·배수

예·이영우 시의원,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집행부 인구조육과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연구 수행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종합토의 및 의견 교환순으로 진행됐다.

발표에서는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현황을 분석했다.

인구 감소 원인 분석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과 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미래 인구 유입 기대 전망도 발표했다.

지리·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정책 4개 분야 추진 전략과 19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은 이영기 시의원은 "영천시는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중간보고 발표였지만 면밀한 지역 여건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있어 의미 있는 보고회였다. 남은 연구 기간 동안 더욱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종합·구체적인 인구정책을 발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축사 악취 방지 대책 연구회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해당 연구모임 소속 △김종욱·이갑균·김용문·우애자 시의원이 참석했다.

연구용역 수행업체 및 집행부 환경보호과, 축산과 등 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여 연구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발표 내용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

발표에서는 화랑실화마을, 도계서원 등 주요 관광지 인근 둔사 12곳을 대상으로 농가별 악취 영향을 예측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국내 악취저감기술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악취저감기술분석의 한 모델인 '발효 분뇨 순

환시스템'의 국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차례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제도적 악취관리방안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김종욱 대표의원은 "축사 가축분뇨에서 비롯되는 악취 발생으로 인근 관광지 운영과 지역 주민들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번 연구용역으로 근본적 악취 해결책 발굴 및 이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이날 영천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심사한 조례안인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 심사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하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의결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기정액 1조 565억 원 대비 0.9%(92억 원) 증가한 1조 65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회의 결과, 일반회계에서 1억 5300만 원이 삭감되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진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제240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은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조지연... 어쩌나

檢 조사 3시간30분 받고 귀가 혐의인정 질문 묵묵부답 일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출석한 국민의힘 조지연(사진) 의원(경북 경산시)이 3시간30분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3시간30분 만인 오후 5시쯤 나온 조 의원은 "억울한 점은 없으나", "지역 주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를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 있음'으로 조 의원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북의 문화... 카자흐스탄에 울려퍼졌다

이철우 경북지사, 브랜드 'K창' 해외 1호점 개관...

경북도는 지난 6일 오후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극동학부 한국학과 건물 4층에서 'K창 해외 1호점' 개관식과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

행사는 이철우(사진) 경북지사와 잔세이트 투이메바에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 총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K창은 단순 공간 개념 넘어, 양국 간 문화·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알마티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양국 간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공간으로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양한 국가에 지속해서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행사는 K창 현판 제막식, 도서 기증식, 학생들

과의 대화, 경북도 홍보영상 시청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K창 해외 1호점'은 한국학을 연구하는 알파라비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자료와 한국과 경북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치된 K창은 12평 규모의 공간에 500여권의 도서와 책장과 소파, 테이블 등으로 꾸며졌다.

도는 이곳을 한국과 경북을 홍보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번 기증식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기증한 도서를 전달, 한국학 연구와 교육에 이바지한다.

기증 도서는 국학진흥원 등 도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보내온 소중한 자료들로 꾸려졌다. 이 도서들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한국과 경북에 대해 궁금한 점들

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묻고, 이 지사도 학생들에게 가깝고 한국과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다.



도는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와의 학문적 교류를 더욱 강화, 한국과 경북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

K창은 "알아야 편한한다(벽에 부딪힘을 면한다).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책을 가까이 하고 지식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평소 소신을 담아 2022년 12월에 경북도청 1층 현관에 설치한 공간이다. 김성용 기자

영양군, 호우피해 복구비 321억원 확정...

입암면 225억원 투입 복구 공공시설 복구설계 진행 중

영양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사업비 321억원을 행정안전부 및 경북도로부터 최종 확정받았다.

영양은 지난 7월 8~10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 및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파손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재산 복구지원비 14억원, 공공시설 복구비 307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 및 청기면에는 복구비 중 국비(134억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원이 추가돼 총 227억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군은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경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복구사업비로 225억원을 확정했다. 권병동 기자

청송군, 3년 만 산부인과 진료 '부활'

청송군보건소의료원이 2021년 4월을 끝으로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았던 산부인과를 6일부터 다시 열고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진료를 한다. 도에 따르면 이는 경북도 공공보건의료협력 강화추진단의 업무협약 기관인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지역의 필수 의료로 강화하고자 하는 경

북도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청송군과 인근 지역 산모들이 상급종합병원의 우수한 의료진을 집 가까이에서 만나 정기적인 산전 진료와 분만과 검진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도내 어디서나 1시간 내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윤병문 기자

경북서 수요자 중심 저출생 극복 사업 활화산

경북 북부 결혼·출산·보육 거점 생긴다... 38억 확보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확보했다.

저출생과 전성 중인 경북도가 저출생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를 확보한 셈이다. 통합지원센터는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 저출생 극복 기능을 한데 모아 맞춤형으로 윈윈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경북 북부지역에는 결혼·

출산·보육 거점이 생겨 도민들이 결혼, 임신, 출산, 보육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특화 프로그램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전국 89개) 및 핵심 지역(전국 18개)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진행됐다.

전문가들의 현장 점검과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경북(안동), 강원(속초), 전북(익산)이 선정됐다.

도는 북부지역 시군 공동 이용 및 협력, 돌봄과 일양립이 가능한 일자리편의점 등 특화 프로그램, 보건소·도서관 등 인근 기관·시설과의 연계

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선정된 '경북 북부 저출생 ALL-CARE 센터'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특별교부세 38억, 지방비 12억)이 투입된다.

안동시 율곡동 인근 건물을 개보수해 결혼·임신·출산·보육 등 핵심 분야별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시설로는 △1층(결혼) 청춘남녀 만남을 위한 청춘 놀이터, 북카페 △2층(보육) 일차리편의점, 돌봄도서관 △3층(임신) 임신부 상담소, 임마교실 △4층(출산) 출산가정 종합상담, 가족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시군 인구정책 부서와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새일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지역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성용 기자

경주 맛집 '홍보맨' 돼 주세요...

경주시가 전 국민 소비자참여 행사로 지역 음식점 홍보에 나선다. 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지역 음식점 방문 후

SNS 채널(인스타그램) 인증 행사인 '경주 먹보왕' 행사를 한다.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된 먹보 149 명에게는 △3만 원권 경주페이(충전식 카

드형) 우수 리뷰자로 선정된 먹보왕 1명에게는 △경주페이에 넌텐도 스위치를 추가 지급한다.

참여자는 경주지역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 방문객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경주시 공식채널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팔로우와 행사 게시글에 '좋

아요'를 눌러야 한다. 경주지역 음식점을 방문, 식사 후 음식사

진과 영수증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 이후 본인 인스타그램에 음식사진 및 필

수해시태크 3종 리뷰를 등록하면 된다.



경주형 마을만들기 도도하게 '뚝' 올렸다

마을에는 활력 주민에게는 자긍심 내년 마을만들기사업 설명회 개최

경주시가 오는 12일 시청 증축관 앞천홀에서 '2025 경주시 마을만들기사업 사전설명회'를 가진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0년 지방이양 이후로는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구상 추진해 주민들의 사업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경주형 마을만들기사업'의 모범사례로 남겠다"라며 "앞으로도 마을에는 활력을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2025 마을만들기사업 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을 공모 선정 필수 조건으로 내세웠다. 추후 공모에 관심이 있는 마을도 설명회에 참

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설명회 1부에서는 2020년 지방이양 이후 그간 추진돼 온 사업 중 5개 마을의 이장과 용역사가 그간 추진돼 온 지역 마을만들기사업의 마을별 추진 과정과 성과 등을 직접 발표하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는 2025년 마을만들기사업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사업공모 지원조건 및 대상지 선정 기준 등에 설명한다.

설명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는 하구2리 마을주민들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

행사장 입구에서는 기존 준공된 마을의 현황과 성과 등을 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마을만들기 신규사업을 접수한다.

2020년 지방이양 후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이 준공된 마을은 건천읍 대곡리, 문무대왕면 권이리, 서면 도리, 천북면 화산리가 있다.

기본계획 완료 또는 착공된 마을로는 문무대왕면 용동2리, 현곡면 하구1·2리, 강동면 오곡3리, 서면 사라리, 산내면 우라1리, 서면 서오리, 안강읍 산대1리가 해당된다.



3~ 8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순방 중인 경주시 대표단이 7일 새마을 시범마을로 지정된 후에서 '홍릉마을'을 찾아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주시, 추석맞이 '시가지 청결 종합대책' 추진

24개 특별단속반 상시투입 무단투기... 집중 단속 계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에 생활쓰레기 수거 장면

경주시가 귀성객과 시민들이 깨끗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청소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시는 특별 관리대책으로 △상황실 및 기동청소반 운영 △지역별 대대적 환경정비 △명절쓰레기 줄이기 홍보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계도·단속 강화 등을 한다.

연휴기간 생활(음식물 포함) 쓰레기는 9월

15·17일은 수거하지 않는다.

9월 14·16·18일은 정상 수거한다.

상황실과 기동청소반은 5개 반, 15명으로 구성돼 운영된다.

기동청소반은 민원 발생 시 차량과 인력을 즉시 투입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한다.

지난 2~18일까지는 읍면동 자체 실정에 맞게 다중이용시설, 관광지, 쉼터 공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한다.

지난 6일 북경주 교차로 나들목 일대에서는 환경녹지국 주관으로 직원, 자생단체 회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환경정비에 나섰다.

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명절 음식문화 개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현수막, SNS 등을 통해 생활쓰레기 감량 활성화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터미널, 역 주변 정제구간 등 쓰레기 무단투기

전기이륜차 배터리...충전 접고 공유

경주시가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Battery Swapping Station : BSS)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시민 서포터즈 발대식을 지난 6일 가졌다.

행사에는 송호준 경주 부시장, KooRoo 대표, 시민서포터즈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은 서포터즈의 활동 요령과 전기 이륜차 안전교육, BSS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서포터즈들에게 전기 이륜차를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서포터즈는 시민, 대학생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새마을 운동 소중한 경험 베트남과 함께 해요

경주시, 베트남 홍릉마을 새마을 시범마을 찾아 사업 성과 점검

베트남을 순방 중인 경주시 대표단이 지난 7일 새마을 시범마을로 지정된 후에서 '홍릉마을'을 방문했다.

경주시 대표단이 찾은 홍릉마을은 경주시-해외자매도시 '후에시' 간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새마을 세계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표단은 이날 홍릉 마을회관 및 새마을농장을 둘러보며 새마을 세계화사업의 성과를 확인

하고 베트남 현지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후에시 레홍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방문 및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2021년 8월 경주시-후에시 간 MOU를 체결로 본격화된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새마을재단 출연으로 5개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으로 후에시 홍릉마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마을회관 신축, 새마을 농장(2ha) 조성, 마을안길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다.

새마을농장 2단계(1ha) 조성 및 그린하우스

설치, 지역 거버넌스 지속 운영강화, 새마을 및 협동조합 교육, 농업기술 교육, 새마을농장 스마트 운영시스템 구축, 새마을클러스터 조성 등이 현재 추진 중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을 자매도시인 베트남 후에시에 조성해 이렇게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새마을 운동의 소중한 경험을 베트남과 나눠 지구촌 모든 인류가 행복해지는 일에 이바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년고도 경주의 미래... 2030 경관계획 비전 발표

경주 찬란한 역사문화 반영된 도시경관 구현 매력적 생활환경 제공

경주시가 '2030 경관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를 열고 천년고도 경주의 경관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지난 4일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는 도시계획 관계자, 경관 전문가, 시민들이 참석해 주요 내용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2018년 수립된 '경주시 2025 기본경관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새로운 경관계획을 발표했다.

경관계획의 핵심은 경주의 경관 미래상을 '천년의 향기를 품고 자연을 담아 사람을 아우르는 새천년 고도의 중심경주'로 설정하는 골자다. 경주는 역사적 가치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자

연경관이 복원된 매력적인 도시로서 경관 정체성을 확립한다.

경관 구역, 축, 거점별 기본 구상과 함께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경주대, 계명대, 대구한의대 교수와 JH조경엔지니어링 대표 등 전문가들은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두고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와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시는 오는 1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까지 경관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기억할 경주가 됩니다. 역대 가장 완벽한 APEC, 경상북도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 청도군 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참가

청도군 임업후계자협회는 이달 5~7일까지 울진군 왕피천공원에서 개최되는 제33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에 참가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와 (사)한국임업후계

자협회 경북도지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국 대회는 “소득이 있는 임업, 일자리가 있는 임업, 지역을 살리는 임업”이라는 주제로 임업 학술세미나, 강연회, 체험·전시프로그램 등으로 진행

되며, 전국 각지의 임업후계자와 가족 1만여명이 이상이 참여하여 산림의 비전 제시와 임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청도군 임업후계자협회는 총 3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전국의 임업인들과 소통하며 최신 임업 동향과 트렌드를 파악했다. 조여은 기자



## “청년이 머무는 청도로”... 거점별 협력 공간 소통

지역 지원 조직 성과 공유 가져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홍보 지역 내 창업가들과 노하우 공유

청도군은 지난 5~7일까지 로컬임팩트랩(청도읍 고수동5길 21), 청도천 데크길(향군회관 앞 ~ 한국전력공사 청도지사 구간), 청도고교 운동장 일원에서 군민, 인근 도시 생활인구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청도혁신센터의 지역 창업가 양성, 주민 주도 지역문제 발굴·해결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도군 내 여러 중간 지원조직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여 지역의 유연한 발전을 위해 기획했다.

소통협력공간 주간 행사는 3일 차로 진행, (실내)로컬임팩트랩에서 청도혁신센터 임주기업의 실내·외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야외)청도천 데크길 일원에서 청도혁신

센터 임주기업의 플라마켓, 영유아 목마 놀이터 등 전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2일 차 프로그램으로 청도혁신센터 임주기업이 운영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양모비누 제작 체험 △발효 천연조미료 만들기 △스머지 스틱(천연방향제) 체험 △커피 핸드드립 체험 등을 지역 주민 120 여명과 공유하며 지역 내 창업가들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3일 차는 청도천 데크길과 청도고등학교 운동장 일원에서 △지역 특산물 복숭아 병조림, 잼 판매 △지역문제해결활동 모음 결과물 전시 △오찬물 판매 및 지역 할머니 이야기 전시 등 지역 창업가들이 직접 제작한 상품을 전시/판매/체험하는 공간과 야외 도서관, 영유아 놀이터, 찾아가는 영화관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군민 및 인근 도시 생활인구들에게 적극적인 호응을 얻으며 행사의 막을 내렸다. 조여은 기자



### 김천시, 2024 스마트그린물류 혁신포럼

산업 최신통향 기술 도입 정책 제안 화물용 전기자동차 체험부스 운영



김천시는 지난 9월 5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 스마트그린물류 혁신포럼을 개최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물류 패러다임 혁신을 모색하였다.

포럼은 김충섭 시장과 나영민 시의회의장, 이

정우 경상북도 메타AI국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이어 주제발표, 패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추가로 화물용 전기자동차 체험부스를 운영하였다.

2024 스마트그린물류 혁신포럼은 생활물류 혁신의 방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도심물류 서비스 혁신방안과 유럽의 화물용 전기자동차 산업 최신통향 및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등을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조성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2024 스마트그린물류 혁신포럼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의 비전을 공유하여 김천시의 물류산업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 성황리 마무리

관외 거주 5개지역 향우회 동참 상금 지역체육발전 기탁금 전달

울릉군은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가 지난 5일 울릉공설운동장에서 울릉군 체육회 주관, 울릉군 주최 및 관내 각종 기관단체 후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막식에는 장흥농악단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하여 선수단 입장과 공회식 울릉군체육회장의 대회사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성화 주자로는 2명의 자녀를 둔 10년차 다문화 가족인 허봉조 부부가 군민들의 박수를 받으며 대회 성화

의 불을 밝혔다. 이후 진행된 식후공연으로 울릉중학교 학생들의 치어리딩 공연, 아랑고고 장구공연, 그리고 경상북도체육회 소속의 아리랑 태무 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공연을 선보여 대회 분위기를 돋우었다.

지난달 28일부터 7일간 열린 사전경기(9종목) 및 본경기(9종목) 개최 결과 일반부 종합 우승 서면, 종합 준우승 북면, 종합 3위 봉래, 고등부 1위 사동, 서·북면, 2위 도동, 3위 저동·봉래 선수단이 입상을 하였다.

또한 직장부에서는 6기관단체가 참가해 1위 울릉경찰서, 2위 울릉고등학교, 3위 울릉교육

청팀이 차지하였다. 대회에서는 특별히 관외에 거주하는 5개지역 (포항경기대구울산구미)향우회에서 연합팀을 구성하고 참가하여 지역민들과 같이 교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입상상을 수상하고, 상금을 지역체육발전에 써 달라고 울릉군체육회에 기탁하였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제55회 울릉군민체육대회에 향우회가 처음으로 참여를 한 만큼 성과를 떠나 친선을 다지고, 울릉군민으로서 하나 됨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길 바란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정윤환 기자

### 영양군, 군립 공원묘원 조성 인허가 보고회

고령 인구 증가 화장률 상승 대응 주민 편의 증진 경제 활성화 공감

영양군은 지난 5일 영양군립 공원묘원 조성 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오도창군수를 비롯한 영양군이장연합회장 등 3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장지 수요와 타 지역 시설 이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영양군립 공원묘원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추모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우리 지역은 고령 인구 증가와 화장률 상승으로 장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추모공원 조성은 군민들의 장례문화와 추모 공간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라고 강조했다.

보고회에서는 현재까지의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모공원 조성안이 공유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이었다. 참석자들은 추모공원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권윤동 기자



영양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군립 공원묘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추모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 2024년 영덕군 양성평등주간 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마당극대 공연 사진전·임신 체험수기 전시

영덕군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영덕’을 주제로 지난 4일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 영덕군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개최했다.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관내 초등학교로 구성된 일주 품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양성평등에 이바지한 유공자 표

창과 마당극대 우금치의 ‘쪽빛황혼’ 공연이 어우러졌다.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 아바 육아 사진전과 임신 체험수기 공모작을 전시해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든든한 영덕군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여은 기자

### 울릉군, 코오롱글로벌 일자리 협력 업무협약

지역 청년·연고자 우선채용 협력 고용분야 등 정책개발 함께하기로

울릉군은 지난 2일 울릉군청에서 코오롱글로벌(주)과 일자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코오롱글로벌(주)에서는 지역 청년 및 연고자 우선채용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협력하고 울릉군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고용분야 등의 정책개발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코오롱글로벌(주)은 울릉군에 진출한 1호 대

기업으로, 그동안 양질의 관광인프라 제공을 통해 울릉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고용기회 확대도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또한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 성공모델인 싱가포르-마리나베이 센즈호텔, 제주도-호텔신라 등처럼 지역상권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백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울릉군과 민간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이번 협약이 단기간의 고용창출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 영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물품 전달

20개 자원봉사단체 100가구 후원

영천시 자원봉사센터는 5일 봉사단체와 연계해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온기나눔 물품 꾸러미 100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온기나눔 꾸러미는 추석명절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정과 지역사회 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동참을 위해 영천시·영천시자원봉사센터·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함께 추진했다.

온기나눔 물품은 육개장, 사골곰탕, 참치, 밀

반찬 등 가정간편식과 타올, 두유 등 알차고 실속있는 상품으로 구성했으며, 자원봉사센터 1층 회의실에서 20개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꾸러미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꾸러미는 3개 국민운동단체(영천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영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영천시지회)와 17개 자원봉사단체가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룡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본래 의미인 가족과 이웃 간의 정을 되새기고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영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안동의료원, 라이온스클럽 MOU

경상북도안동의료원은 지난 5일 안동의료원 별관 2층 회의실에서 봉화·영양 지역 4개 라이온스클럽(봉화, 영양MJF, 춘양, 봉화송이)과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조하여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료사업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협약 기관 회원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병원 이용 편의 제공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안동의료원은 1996년부터 안동지역 라이온스클럽과 협약을 통해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송명주 기자

### 상주 함창읍 '복지의 달인' 28호점 현판식

상주시 함창읍에서는 삼치기 문경점을 '우리 동네 복지달인' 28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복지의 달인'은 관내 기관·단체·사업체 등과

후원협약을 맺고 현금·물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는 읍 자체 복지사업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어 27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폐업 등의 이유로 현재는 21개 업체가 함

개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업소에겐 '복지의 달인' 현판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에 현판이 부착된 곳은 '삼치기 문경점'이다. '삼치기 문경점'은 문경시 모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기전문점으로 2022년 개업하였다.



# 영주시 '풍기인삼 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가치발굴 연구용역 착수해 2025년까지 지정 목표 노력 고려인삼 시배지 명성 회복

영주시는 지난 5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풍기인삼 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가치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 전통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승할 가치가 있는 품목을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8개의 품목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경북에서는 울진 금강송산지농업, 울릉 화산삼 발농업시스템,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상주 전통 꽃감농업 등이 포함된다.

영주는 고려인삼의 시배지로서 풍기인삼 농업은 5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한다. 풍기인삼은 조직이 촘촘하고 인삼향이 강하며, 유효사

포닌 함량이 높아 그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4년에 풍기인삼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했으며, 2022년에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풍기인삼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 풍기인삼 농업을 2025년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지정될 경우 향후 3년간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농업유산 자원의 복원과 관리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훈 영주부시장은 "풍기인삼 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다면 고려인삼의 시배지로서 명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풍기인삼 농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상기 기자



### 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 13일부터 3일간 개최

가족 단위 관광객 키즈존 제공 축제장 일원 파크골프장 조성

'다섯가지 맛의 비밀, 문경오미자!'라는 주제로 문경오미자축제가 20번째 시작을 알린다.

문경시는 6일 문경시청에서 신현국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문경관광진흥공단, 축제대행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을철 문경 대표 농산물 축제인 문경오미자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축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 제20회 문경오미자축제는 13~15일 3일간 문경시 동로면 금천둔치(동로면 적성리 525-11)에서 개최되며 박서진, 마이진, 정서주 등 유명가수 축하공연, 오미자 할인

판매, 청담고기체험, 미각체험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전국 일등 문경오미자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축제장에서는 최고품질 생오미자, 건오미자, 오미자당절임을 특별할인가(생오미자 15,000원/kg)로 구입할 수 있으며 오미자홍보관, 농특산물판매장, 미각체험관을 통해 다양한 오미자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 키즈존(에어바운스, 친환경 나무놀이터), 키다리 배에로 아저씨 공연, 오미자 수상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축제장에 조성된 파크골프장도 이용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숨사탕 같은 오미자꽃이 새빨간 결실로 변신한 9월, 문경으로 오셔서 추석 선물도 구입하시고 문경오미자로 건강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수상 후보 작품 발표

52개국 1012편 출품 경연 총 42편 수상 후보로 선정

예천군은 올해도 6화째를 맞은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수상 후보 작품들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작품공모에는 미주, 유럽, 중동, 아시아 등 52개국에서 1,012편이 출품되며 영화제의 글로벌 확장성을 입증했다.

심사 결과 일반부, 학생부, 시니어부, 숏폼 부문에 총 42편의 작품이 수상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는 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됐다.

모든 수상 후보작은 다음 달 초 온라인 상영관(영화제 누리집)을 통해 먼저 감상할 수 있고, 내달 12~13일 메가박스 경북도청점에서 스크린 상영으로 오프라인 관람이 가능하다. 최은하 기자

수상 후보 감독들은 개막시상식에 초청돼 현장에서 순위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봉만대 예술총감독은 "대학교 졸업작품부터 전문 영화감독들의 참여까지 예천영화제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해외에서도 더욱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좋은 작품들이 공정한 경쟁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고심해서 결정하신 심사위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영화제를 통해 예천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제 개막·시상식은 내달 12일 호명읍 패밀리파크에서 개최되며 레드카펫과 시상식, 크라이닉 라이브 공연과 영화인의 밤,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영주시, 도시 공간환경조성 마스터플랜 만든다

관련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저비용·고효율 도시 재구조

영주시가 통합적인 도시 공간환경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시청 강당에서 이재훈 영주부시장을 비롯해 영주시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 민간전문가 및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

시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된다. 시는 내년 12월까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환경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 의성군, 환경부 배출업소 환경관리 평가 1위

법령 위반 조치율서 높은 평가 23년 실적 평가 중 3그룹서 1위

의성군은 지난 4일 환경부가 실시하는 총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1위를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환경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평가 항목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점검률·위반율·오염도 검사율 등)로 기초지자체는 배출업소 수를 고려해 5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으며 의성군은 2023년 실적에 대한 평가에서 3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장기간 휴업과 폐업으로 방치된 배출업소에 대한 일제 정비와 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율 36.1%(전국평균 19.01%)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주에서 개최된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악취는 특성상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

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주민 악취배출시설인 축산시설과 비료생산시설에 24시간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무인자동 측정기 운영', 의성 쓰레기산 이후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의성 사랑환경지킴이 운영' 등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김주수의 의성군수는 "의성군은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관리·감독하여 군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 존리, '새로운 10년의 시작' 봉화아카데미

봉화청소년센터 공연장서 진행 자산 증가와 복리 마법 등 주제

봉화군은 지난 4일 봉화군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투자전문가 존리 대표를 초청해 '존리의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란 주제로 2024년 제2회 봉화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존리 대표는 뉴욕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등을 거친 투자전문가로 강연과 방송 출연,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현재는 '존리의 부자학교', 유튜브 '존리 리

이프스타일 주식'을 통해 금융교육을 펼치고 있다.

강연에서 존리대표는 '새로운 10년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투자의 철학과 원칙, 자본을 이용한 자산 증가와 복리의 마법, 경제독립을 위한 액션 플랜, 노후 준비법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명강연을 펼쳤다.

참석한 청중 한 명은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 초청해 다양한 지식과 폭넓은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봉화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올라



른 가계 소비와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면서 "100세 시대인 만큼, 미리미리 탄탄한 노후 준비를 계획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 문경,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교육

문경시는 지난 3일 재활용선별장 2층 회의실에서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23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복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 보건 의식 고취와 근로자의 안전사고 사전방지 및 복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내용으로 작업유형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과 예방대책, 안전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정 준수, 재활용선별장 방법 등을 설명했으며, 교육을 마친 후, 자원순환센터 직원들은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일에 힘을 보탤다.

염수민 자원시설장은 "재활용선별장 작업을 하면서 문경시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애쓰는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근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봉화군, 청소년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 인기

5개교 중고생 635명 대상 공연 통해 건강 실천 쉽게 전달

봉화군보건소에서 진행한 청소년 대상 흡연 예방 뮤지컬 공연 '미래에서 온 친구를 소개합니다'가 성황리에 마쳤다.

공연은 지난 2~3일까지 한국산림학교고등학교, 춘양중학교, 봉화중학교, 한국뫼고등학교, 청량중학교의 중고등학생 6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통해 직간접 흡연의 위험성과 약물 오남용이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배우들의 연기를 통해 뮤지컬 공연이 학업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시간이 되며, 건강 정보를 얻게 되는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됐다.

청소년기의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며 신체발육, 우울감 등 청



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장애물임을 현장감 있는 뮤지컬을 통해 사전 예방 교육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건강 습관 형성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뮤지컬을 본 한 학생은 "뮤지컬도 보고 흡연과 약물 오남용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한국 봉화군수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 흥미도 얻고 올바르게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상기 기자

# Opinion

신문 및 이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지 야 합 니 다 대구 광역 일 보 는 독 자 의 생 각 합 니 다



### 대구광역시

www.dgy.co.kr  
등록번호(일간) 대구가 00016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발행인 김 영 속  
편집인 김 성 웅  
부사장 조 여 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경영부 253-0061  
문서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칼럼

## 한전 하루 이자만 120억... 전기 요금 정상화 시급

### 박 병 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탈원전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가장 싼 전력 생산 수단인 원자력을 버리고 우리나라의 조건으로는 경쟁력이 의심스러운 태양광·풍력 발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함으로써 탄소제로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전 정부의 꿈은 꿈으로 끝날 것 같다.

2022년 원자력이 EU의 탄소노미(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위한 새 분류 체계)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전 세계에 원전 건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

태양광·풍력 발전의 여건이 절대적으로 좋은 나라들까지도 축전과 송전의 어려움 등으로 소형 원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고사 일보 직전까지 몰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체코에서 원전 2기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한 것은 눈물겹도록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 발전소를 지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미 세계는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는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전기의 양과 질, 가격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에 전력과 물이 엄청나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인 데이터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한다.

전기자 보급이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

국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에너지 다소비산업인 중화학공업에 치중했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은 불을 보듯이 환하다.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는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이 2030년까지 2배로 늘어나 미국 전력 소비량의 9%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도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반도체·데이터센터·전기차 등의 수요를 중심으로 2038년 전력 수요가 지난해 여름 기록한 최대 전력 사용량 98.3GW보다 31GW 증가한 129.3GW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기의 질도 중요하다. 첨단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앞서 높은 수준의 전력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낮은 정전 시간, 정전압 유지율 등 전통적 품질 기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품질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의 첨단산업에서는 품질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다.

데이터센터·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은 미세한 전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간전압 꺼짐, 역률 저하 등 새로운 개념의 품질 관리가 요구될 것이라고 한다.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은 전기를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달려 있다.

발전·송배전·연구개발 등 전력 산업에 전문

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이 시점에 전기 요금의 현실화 지연은 한전의 투자 역량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다.

한전은 최근 3년간 43조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대부분을 한전채 발행으로 매꾸어 왔다.

2023년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이자 비용은 하루 120억원이며, 연간으로는 4조4000억원에 가깝다.

한전 주식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51%, 국민연금 7.3%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전기 사용자들이 전기 요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다른 국민이 다른 형태로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 피해는 이것만 아니다. 한전이 정상적으로 수익을 내게 가격을 조정해 주면 한전 주가는 6.3만원까지 올라간 적도 있는데 최근 1.6만원까지 하락했다.

시가총액이 2015년 32.1조원에서 최근 12.5조원으로 떨어졌다. 이 시총 증발의 손실도 반은 정부와 국민연금의 몫이지만 25.5%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더 직접적 피해자다.

한때 30%를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은 이제 14.6%만 남겨 놓고 있으니 좀 덜 미안하다. 한국 주식 저평가의 진면목이자 대표적 사례다. 증시 밸류업에 열심인 그 정부가 맞는가?

이런 재무 상황에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차입의 비용이 더 비싸질 수밖에 없어 그만큼 투자는 지연되고 전력 생산 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다.

최근 공급 비용이 낮은 산업용·일반용(서비스산업) 전기료를 주택용보다 더 비싸게 한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가정용 요금을 확 높여서 전기를 많이 쓰는 계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기를 얼마 쓰지도 않는 저소득층에게는 전기료 보조를 늘려주면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격을 통제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는 없었다.

가격을 억눌러서, 물가 통계를 분석해서 표가 안 떨어질 것 같은가? 여당은 경제 전체의 평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오늘의 정치 논평

## 이재명 대표님,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이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주택 가격 급상승으로 삶의 터전과 기회의 사다리를 잃은 청년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이재명 대표님의 마음은 심분 공감합니다. 더욱이 금투세 도입에 대한 청년

세대와 게이 투자자들의 거센 분노의 물결 앞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묘수로, ISA 확대를 통해 비교세되는 해외 주식투자의 길은 열어주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로 과세하는 안을 찾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포에만 휩싸인 나머지 국내 주식시장의 소중함과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간과하였습니다.

대만에서 금투세와 유사한 세제가 도입되면서 대만 TWSE 지수가 한달만에 36% 폭락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최소한 유예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낙관할 수 없으며 그것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 기업이 아니라 해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자에게 중과세해야 한다”라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기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부자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과 게이투자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임을 이재명 대표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도 오래된 낡은 신념을 뚫고, 청년과 게이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용기를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까지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안 규탄

대구참여연대 지난 8월 30일 대구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구시 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됐다.

홍준표 시장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폐지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비상설화한 후 위원회가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협력사업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대구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할 가능성이 불투명한 점, 다른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다른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조례 폐지의 과정과 폐지 이유 모두 문제가 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또는 상위 법령을 통한 지원이나 위임 내용이 변경됐을 경우다. 둘째, 이 조례의 폐지안을 발의한 김태우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대구시의 대다수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 셋째, 조례 폐지의 절차도 문제다.

이 조례폐지안이 대구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날은 23일이다. 30일 상임위 심의 일주일 전이었다. 법규가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현재 대걸로 차단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정황상 교류협력력이 어렵다고 해도 이는 현재의 정치적 조건일 뿐 상황이 달라지면 재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저버리는 역사적 퇴행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폐지안 의결을 규탄한다.

### 나의제언

## 안전한 벌초... 준비와 주의사항



김광수 청송소방서 소방장

추석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 작업을 계획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성묘를 위해 예초기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벌초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예초기는 효율적인 벌초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예초기의 무게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체력의 한계를 고려, 작업해야 한다.

작업 중 돌이나 기타 이물질이 비산, 부상을 입힐 위험이 있어 주변을 철저히 점검하고 작업 지역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

예초기의 날이 사용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 작업 시 반드시 안전 장비를 착용, 작업 시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작업 전 날땀을 확인, 비나 강한 바람이 예보된 날은 벌초를 피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복장은 피부를 보호하고 부상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다.

긴 팔, 긴 바지, 모자, 장갑, 그리고 튼튼한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주변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 도구 사용법을 숙지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벌초 지역에는 벌, 모기, 진드

기 등 해충이 많으므로 벌레 기피제를 미리 준비, 벌집이 보이는 곳은 피하는 게 좋다.

모지 근처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화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간단한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 상처나 벌레 물림 등의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휴대폰을 반드시 지참, 작업 지역 내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벌초는 우리 조상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이지만, 안전이 우선이다.

예초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 사전 준비와 주의 깊은 작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독자들이 그렇게 원했던 신문이 바로  
**'대구광역시일보'** 입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